

정원박람회 개막 코 앞... '노조 농성' 장기화 우려

노조, 고용승계 요구... 시장 고발 조직위 "기준근로자 우선고용 제한 내년에도 고용보장 요구는 안될 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정원 노조의 고용 승계 요구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국가정원 노조에 '우선 고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들이 관련 신청서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가정원 노조는 지난 2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가정원 노조원 등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알면서도 '공무원 시켜달라'고 때를 쓰며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불법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원 노조는 조직위가 2023정원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소속 노조원들이 6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람회 개최를 이유로 2개월, 3개월, 7개월짜리 쪼개기식 계약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지침이기도 한 고용안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노조원들은 "우리는 길게는 10년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일한 상시 근로자"라며 "공무원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지침대로 고용 승계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 우선 고용의견을 대행사에

전달했고 일차적으로 채용되도록 길을 열어놨는데도 노동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조직위는 이어 "순천만국가정원은 최근 10년 동안 공개입찰을 통해 1~2년 단위로 대행사를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며 "국가정원 근로자는 대행사 소속인 만큼 고용관계는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와 대행사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17일

까지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명시해 고용보장의 기회를 열어놨다. 하지만 이들은 입사 지원을 하지 않고 의무 승계를 주장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박람회 이후인 2024년에도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운영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고용보장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순천배서준 기자

청년마을 만들기 참여단체 모집 순천시, 17일까지 접수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남도 주관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과 상생 협력해 청년 인구 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빈집, 폐교 활용 청년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창업 교육, 지역탐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 청년 간 네트워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마련 등이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전남도 또는 순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문을 확인해 순천시청 청년정책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10개 지역을 선정, 1곳당 1년 차는 2억원, 2년 차는 1억원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내년 2636억원 국비 확보 본격 시동

순천정원도시 조성 등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현안 국고 건의사업 76건 1조7579억원을 발굴하고 내년도 2636억원의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순천정원도시 조성(정원박람회 사후활용) 400억원 △해양정원 조성(여자만 갯벌습지정원) 2000억원 △친환경 기능성 마그네슘 소재 기반 구축 사업 400억원 △수소 시범도시 사업 450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 200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 492억원 등이다.

시는 시기를 나눠 3~5월은 전남도와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고 6~8월은 기재부에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예산 반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9~11월은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의 국회 증액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흐름도, 예산 심의 대응, 사전 이행 절차 등을 수록한 2024년 국비 확보 활동 매뉴얼과 정부예산 사업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 16개 부처 전체 단위사업 목록 책자를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직원들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비 사업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국고 확보 사업의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3월 중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119생활안전순찰대 화재예방 총력 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승주읍 중대마을 등 산림 인접 마을을 방문해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목보일러 등 화기사용 점검,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및 점검 등 생활안전업무를 추진했다. 순천소방서 제공

'가든스테이 순천 실랑계' 숙박예약 서비스

10일 체험상품 국내 첫 선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 순천, 실랑계'가 오는 10일 숙박 예약 서비스 오픈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정원 체험상품인 '가든스테이'를 국내 최초 선배라고 6일 밝혔다.

가든스테이는 60만평 정원에서 하루, 100명만이 누릴 수 있는 관람·체험·숙박·가드닝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4월1일~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가든스테이' 예약 시 정원박람회 2일간의 입장권은 기본으로

제공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체험형 관광상품이 쏟아지는 만큼 당초 순천만국가정원 가든스테이를 독점적 브랜드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가든스테이 순천, 실랑계'로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 런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실랑계'는 Shi + Lange의 합성어로 쉼, 조용하게, 느긋하게 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전라도 방언을 활용해 내가 쉬겠다는 표현과 우리 함께 쉬자는 청유형 두 가지 메시지가 포함됐다.

'실랑계'는 스칸디나비아나 독일의 언어를 반영해 표기나 표현도 세련된 정원 문화와 자연을 즐기도록 하는 가든스테이의 상징성을 반영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소년 소통 카카오톡 채널 운영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과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채널 추가를 위해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scy1388)를 검색한 후 추가를 누르면 된다.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청소년전화 1388과 누리집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 안내 및 소식지, 불안·우울 간 이심리검사 등 콘텐츠를 활용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창작예술 공모 참여예술인 선발 순천문화재단, 17일까지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은 '창작예술지원 공모사업' 참여예술인을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의 순수창작활동 및 발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성을 담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순천시 거주 1년 이상의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다.

단체의 경우 순천시민이 60%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기술융·복합 4개 장르이며 팀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원로예술인 △청년 △장애인 △다문화 예술인을 전체 선정 대상자의 30%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며 예술진흥팀(061-746-2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률 도내 최고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률이 목표량(2만1140건) 대비 93%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고 6일 밝혔다.

문화복지카드 온라인 신청은 1만9595건으로 여수시(1만6448건), 광양시(9834건) 등 전남 동부권뿐 아니라 서부권을 포함해 전남도내 가장 높은 신청률

이자 많은 건수다. 청년들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관람, 학원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자기계발을 위해 전남도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에 신청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